# 정토 염원 품은 관세음보살의 응현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 ⑫ 날개 달린 신선, 선학(仙鶴)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선학과 주악동자 벽화(조선 후기).


경주 기림사 명부전의 학을 안은 동자상(조선 후기).


조선왕실 십장생 병풍의 학 부분(조선 후기, 국립고궁박물관).

**신선과 장수 상징으로 십장생도에서 확인**
**불교미술서 대표적 극락조로 빠지지 않아**
**경전 · 게송서 학 언급 '학수쌍존' 단어 등장**
**관음보살의 화현, 불전 장엄 원력 상징도**

두루미(Red-crowned Crane)라고도 부르는 학(鶴)은 '뚜루루'하는 울음소리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하천 곳곳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방문한 두루미를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학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빠지지 않는 존재다. 삼국시대부터 표현된 학은 신선사상(神仙思想)과 십장생(十長生)을 의미한다. 이에 예로부터 학은 신선과 장수를 상징했다. 흔히 학에 신선을 뜻하는 '선(仙)' 자를 붙인 선학(仙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불교미술에도 선학은 자주 등장한다. 선학은 동자를 태우거나 봉황(鳳凰)과 짝을 지어 등장하는데 이는 선학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불국토에 머무는 '극락조(極樂鳥)'라는 것을 의미한다.

### 신선의 상징

고구려 고분벽화를 살펴보면 갖가지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학을 탄 도교 신선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고려미술 가운데 도자기에는 구름과 학이 짝을 이루는 운학문(雲鶴文)이 확인된다. 청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문양은 학과 구름이 서로 얽혀있거나 교차로 배치되는 형식이 주를 이룬다. 여기서 구름은 신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요소다.

십장생 중 하나인 학은 오래 사는 동물로 유명하다. 보통은 약 30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공식 기록에 의하면 무려 86년을 산 두루미가 보고됐다고 하니, 단순히 외형만으로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상징으로 불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로 학은 살아온 수명에 따라 그 빛깔도 달라진다고 한다. 이는 중국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의 학자 최표(崔豹)가 편찬한 〈고금주(古今注)〉의 기록이 가장 이른 사례 가운데 하나다. 〈고금주〉 조수(鳥獸) 편은 세상 모든 길짐승과 날짐승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는데 "학이 1000년을 살면 푸른빛을 지닌 청학(靑鶴)이 되고, 여기서 1000년이 더 지나면 검은빛의 현학(玄鶴)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학과 함께 십장생의 일원인 사슴이 1000년을 살면 청록(靑鹿), 1000년을 더 살면 현록(玄鹿)에 이르는 것처럼 선학 역시 사는 세월에 따라 그 빛깔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외에 다른 기록에는 오방색(五方色)의 중심인 황색 빛깔의 황학(黃鶴)도 존재한다고 했으며 청학과 현학, 황학은 그 빛깔을 달리하여 신령한 기운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선사상 속 불로장생의 아이콘인 선학은 궁중회화와 민화(民畵) 소재로 즐겨 표현된 십장생도(十長生圖)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청학과 황학, 현학 등 오색찬란한 빛깔을 뽐내고 있다.

### 불교문화의 극락조

학은 청초하고 깨끗하다. 이에 불교문화에서 학은 자주 언급된다. 〈경률이상(經律異相)〉에 의하면, 학이 5근(根)과 5력(力), 8도(道)의 음성을 낼 수 있다고 하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極樂)에는 언제나 갖가지 기묘하고 여러 빛깔을 지닌 학과 공작, 앵무와 사리(舍利), 가릉빈가(迦陵頻迦)와 공명조(共命鳥)가 하루 종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여기서 가릉빈가와 공명조는 불교문화에서 늘 빠지지 않는 극락조(極樂鳥)이니, 함께 등장하는 학 역시 대표적인 극락조라고 할 수 있으며 극락정토를 표현한 여러 불교미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불교 경전이나 스님들의 게송을 읽다 보면 '학수쌍존(鶴樹雙尊)'이라는 단어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정근(精勤)'에도 학수쌍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근이란, 불보살의 존명을 외우면서 수행하는 염불(念佛)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정근 문구 중에는 '나무영산불멸(南無靈山不滅)', '학수쌍존',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南無是我本師釋迦牟尼佛)'이라는 주문 같은 염송으로 도입부를 장식하는 단락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학수쌍존이란 무엇일까?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라(Kuśinagara)에서 부처님이 누우신 곳 양편에 위치한 나무를 뜻한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입멸의 예고를 받고 슬퍼하는 대중이 모여들고, 사라수(娑羅樹)의 숲은 색이 변하여 백학(白鶴)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바로 이 두 줄로 선 여덟 나무 가운데 네 그루가 부처님의 열반을 슬퍼해 하얗게 변한 모습이 마치 학의 깃털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관세음보살의 화신

불교 경전 속 학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는 〈법원주림(法苑珠林)〉에 수록된 중국 송(宋)나라 사람인 팽자교(彭子喬)에 관한 설화가 있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죄를 지은 팽자교는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팽자교는 죄를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에게 고통을 없애줄 것을 간청하며 〈관음경(觀音經)〉을 100번이나 염송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 빛나는 섬광과 함께 한 쌍의 백학이 나타나 팽자교의 형틀을 벗겨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까지 하게 됐다는 스토리다.

여기서 백학의 역할을 추측해 보자. 물론, 팽자교는 죄인이기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리를 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평소 〈관음경〉을 수지독송한 팽자교를 관세음보살이 어여삐 생각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자신의 수족 같은 학 두 마리를 손수 보내시어 죄를 씻기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에 팽자교 설화 속 백학은 관세음보살님의 뜻을 받들어 자비를 베푸는 존재, 즉 관세음보살의 '화현(化現)'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 이야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바로 경전을 정성스레 읽고 외운 팽자교의 공덕이며 그 공덕이 팽자교를 살리게 된 것이다.

### 불교미술 곳곳에 표현된 선학

사찰 내 여러 전각 곳곳에는 화려한 벽화와 단청으로 장엄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불국토를 형상화한 수미단(須彌壇)과 천장, 닫집부터 기둥과 공포를 구성하는 작은 부재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우리 조상들은 전각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신경을 쓴 것이다.

이는 부처님이 살고 계신 전각을 조금이라도 더욱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공덕이자 원력이요, 이를 통해 사찰을 방문한 신자들의 마음에 불심의 씨앗을 심어주고자 하는 중생교화와 포교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찰 벽화와 단청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소재는 바로 봉황과 선학이었다. 두 새는 비록, 불교문화에서 탄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령스러운 '서조(瑞鳥)'라는 성격과 매혹적인 자태 덕분에 자연스레 불교에 스며들게 된다.

### 마치며

불교 경전 속에 등장하는 봉황과 선학은 가장 높은 천상계에서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공양하며 불국토의 이상적인 환경과 부처님의 자비심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때로는 어진 군자와 불로불사를 표방하고, 때로는 불보살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 두 극락조는 사람들의 소망에서 피어오른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용덕 작가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